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신앙 / 무라타 사야카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책방지기 인스타그램에서 '소재가 흥미로운' 소설로 추천한 리스트 중에 있던 책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,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.
<p>믿음에 관한 이야기이자,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.</p> <p>주인공과 동창생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고 있다.</p> <p>- '사이카와'는 다단계 정수기,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</p> <p>- '아사미'를 비롯한 한 무리는 사이카와를 비웃는 한편 얇은 그릇 한 장에 수백-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수집하고</p> <p>- '나가오카(주인공)'는 환상에 속은 친구들을 어떻게든 '현실'로 인도해야 한다고 믿음. 놀이동산에서 팝콘이나 미키마우스 풍선의 원가를 따지며 셈을 하고, 모든 것에서 '저 가격이 말이 돼? 저건 사기야!'라며 열변함.</p> <p>주인공에게 지친 동생이 집을 나가면서 변해야겠다 생각하고, '속는쪽'이 되기로 결심함 p.44) "나도 그 쪽으로 데려가줘. 내 눈에 돌맹이는 그냥 돌맹이로만 보이고,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. 근데 다들 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돈을 내잖아. 그걸 사랑하고.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공유해. 나도 그 쪽으로 가고 싶어."</p> <p>"나는... 이 종교단체를 '진짜'로 만들고 싶어. 난 정말 정수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어. 시작은 사이비 종교라 해도 그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진실이 되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"</p> <p>나는 처음부터 사야카의 올곧음이 무서웠다. 그와 똑 같은 올곧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'현실'을 계속 권유해온 나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이다.</p>
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.
<p>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말하게 될 때, 일명 '0수요 1공급'일 때가 일종의 신앙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책. 달리 말하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,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,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(특히 그것이 반복될 경우) 꽤 곤란한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.</p> <p>책에서는 다단계 판매나 사이비 종교처럼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주인공의 '원가'와 '현실'에 대한 신념, 갑자기 유명해진 고가의 브랜드도 일종의 믿음으로 다룸. 누구나 무언가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을 테마로 한 짧은 소설에서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, 책 마지막에는 이런 저자의 말이 적혀 있었다. " '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에 세뇌된 것이고, 사실 올바른 건 이쪽입니다' 하고 꼭 이쪽이 권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무섭습니다" (*저자 인터뷰 중, '언니의 현실이라는 거,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네' 에 대한 말).</p> <p>➔ 새해 초부터,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타인을 재단하지 말자는 생각을 함.</p>